

다산포럼

‘진인사대천명’의 새로운 다짐



송혁기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좌우명이나 가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한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국어사전에도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 구절의 출처는 분명치 않다. ‘수인사’(修人事)와 천명을 연결하여 쓰인 문장 용례는 있지만 ‘진인사대천명’으로 이어져 쓴 예는 찾지 못했다. 남송 시대 성리학자 호인(胡寅, 1098-1156)의 역사평론서 ‘독서관견’(讀史管見)에 보이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而待天命)이라는 표현이 거의 유일한 출처이다.

통용되는 백과사전에 ‘삼국지’의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설명이 있어서 그대로 따르는 글이 많지만, 정사 ‘삼국지’에는 이런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 출처로 실린 화용도 이야기 자체가 정사에는 실리지 않은 허구적 설정이다. ‘삼국지연의’의 화용도 장면에도 이 구절은 보이지 않고, 다른 제목에 ‘일을 피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지만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謀事在人, 成事在天)라는 비슷한 의미의 용례가 나올 뿐이다.

문구 그대로의 출처는 불명확하지만 진인사대천명의 전통적 의미는 ‘행자’의 ‘수신사명’(修身俟命)에서

찾는 것이 더 가까워 보인다. 맹자는 말했다. “마음을 다하여 실천하는 자는 그 마음의 근원인 성(性)을 알 수 있다. 성을 알면 더 나아가서 성의 근원인 하늘을 알 수 있게 된다. 마음을 보존하여 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며, 요절할지 장수할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수양하여 천명을 기다리는 것은 명을 세우는 것이다.”

진인사대천명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진인사와 대천명은 별개가 아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뒤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닐지는 하늘에 맡긴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 자체가 바로 천명을 나의 몸세 세워 구현하는 것이 된다. 그럴 때 요절이나 장수에 구애될 일이 없고 부귀든 빈천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기에 이른바 ‘안반낙도’(安貧樂道)의 묘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성인(聖人)이 되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인일 수는 없다. 의연한 삶을 살기에 부족한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인사대천명은 여전히 철저한 노력 없이 요행을 기대하지 말라는 엄중한 권면이고, 그러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는 깊은 위안을 주는 말이기도 하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뒤에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그때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건네는 말로 이보다 더 따뜻한 말이 또 있을까.

나아가 진인사대천명은 때로 약한 우리가 선을 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요절과 장수,

부귀와 빈천에 개의치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욕망과 불안은 우리를 끊임없이 선을 넘는 자리로 내몬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그 자리에서 진인사대천명을 떠올렸다. 오랜 유배 생활 중에 모처럼 풀려날 기회가 왔는데 이이경, 강준승 등의 방해로 무산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장남 정학연이 이들에게 굶고 도움을 청하라고 권하자, 다산은 말했다. “내가 생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천명이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천명이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도 않고 천명을 기대하는 것은 이치에 참으로 맞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런데도 끝내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천명일 뿐이다.”

다산은 이 말을 하면서 대단한 의리를 내세우지 않았다. 세상일은 올라르고 그릇됨과 이롭고 해로운의 두 가지 잣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올라르고 이로운 길을 취할 수 없다면 올라르고 해로운 길에 머물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이다. 정학연이 관한 것은 그릇되고 이로운 길이었지만 이는 그릇되고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체념과는 다르다. 대천명의 자세가 만들어주는 마음 한편의 공간이다. 그 자리가 있기에 격정을 툭 놓아 버리고 세월의 흐름을 기다릴 여유가 생긴다.

인사를 다하는 것이 곧 천명의 실현이 되는 입명(立命)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해도, 욕망과 불안에 굴복해서 천명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켜야 할 선을 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진인사대천명의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이유이다.

김하림의 차이나 4.0

격차 사회와 공동 부유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사드 배지로 인해 한중 관계가 경색되기 전이니 적어도 칠팔 년 이전의 일인 듯하다. 광항에 도착하여 탑승까지는 제법 여유가 있어서 매장 구경을 다니던 중 어떤 명품 매장에서 중국어가 귀에 들어왔다.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부부가 다루고 있었다. 살짝 귀를 기울여 보니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부인은 최근에 출시된 가방을 사려는데 남편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니 다른 것을 고르라며 반대하고, 남편은 붉은색 구두를 사려는데 부인이 절대 안된다면서 말다툼이 일어난 것이었다. 다툼이 길어지자 남편이 결단을 내렸다. “좋아! 다 산다.” 씩씩대며 계산대로 다가간 남편은 가방 두 개와 구두 두 켤레를 사겠다고 눈이 동그레진 통역에게 말한 후, 남자 중국인들이 흔히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자그마한 돈 가방에서 한국 돈 오만 원권 두 다발을 꺼내 호기롭게 내려놓았다. 이를 지켜보던 나는 탑승 시간이 다 되었다고 부랴부랴 아내의 등을 떠밀며 매장에서 도망쳤다.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한 지 40여 년 동안 중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국가도 부자가 되어 2010년 G2 국가로 올라섰고, 중국인들 중에 세계적인 부자로

많이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포브스 잡지 3월호의 세계 부자 100명 순위에 홍콩의 두 명을 제외하고 중국인은 19명이었고, 한국은 이견도 삼성 전자 회장 한 명 뿐이었다. 일인당 소득도 1만 달러를 넘어섰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연간 1억 명이 넘는 중국인이 해외여행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못사는 마을은 못살고 있다. 빈부 격차, 소득 격차, 도농 격차, 지역 격차, 주택 격차,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격차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양극화는 모든 분야에서 확대 심화되고 있다. 베이징·상하이·광저우 같은 대도시와 서북부 지역의 농촌은 비교 불가능한 정도의 격차가 존재한다. 첸탕강이 내려다보이는 항저우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 강남을 상회하나 서북부 시골에는 여전히 초막 생활을 하는 인민이 있다.

올 1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의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국가통계국 발표 기준으로 2018년 0.468에서 2019년 0.465, 2020년 0.468로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소득 5분위 배율도 2020년에 6.2배로 나타나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상위 1%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하위 50% 계층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소득 격차가 이렇게 크지만 정부 재정의 재분배 기능은 미흡한 상황이다. 재정 지출 중 보건·복지 지출 비중이 35%로 미국 45%, 독일 60%, 일본 62%에 비해 낮다. 저소득층의 소득 중 정부가 지원한 이전소득 비중이 20%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절대

적 빈곤에서는 벗어났으나 상대적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격차의 폭은 역사적으로 볼 경우 봉건 왕조 말기나 공산당 집권 직전 시기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불평등 심화로 인한 민심 이반이 우려할 수준에 처한 것을 인식한 공산당 지도부가 다 함께 잘살자는 ‘공동 부유’ 사회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체제의 정당성과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불안과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셈이다.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평계 만으로는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 직면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공동 부유에 대해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부자를 억압하여 빈민을 구제하는 살부제민이나 사회적 재부를 평균적으로 분배하자는 평균주의가 아니라, 먼저 부자가 된 개인이나 부문이 선도하면서 협조와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자는 것이 공동 부유라고 강조한다. 모두가 동시에 동등한 수준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잘 나누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일차 분배, 이차 분배, 삼차 분배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수 확대, 사회 보장의 실질화를 통한 중산층의 확대를 락비공 같은 분배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 설명한다. 특히 흥미로운 주장인 삼차 분배는 강제적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 방식의 세수 조정을 통한 자발적(?) 방식으로 성립이나 기부를 통해 분배 구조를 보충하는 작용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계 더불어 잘살자는 것은 인류 공통의 오랜 염원이자 이상이다. 중국이 위대한 실험을 통해 초보적 수준이 나와 성취할 것인지 아니면 흑색무민(黑死無民)의 도그마로 그쳐 위대한 실험에 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일이다.

社說

코로나 정점에 병상 부족...피해 최소화 대책을

광주·전남 지역에서 연일 2만 명 인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중증 환자용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힘겹게 통과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방역 조치를 완화해 병상 부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제 새벽 0시 기준 광주·전남 지역 중증 환자용 병상 90개 가운데 69개가 사용중으로, 가동률이 76.6%에 이르고 있다. 이들 병상은 자가 호흡이 어렵고 산소 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광주기독병원과 순천 성가톨릭병원의 경우 각각 6개의 중증 병상이 한자로 가득 찼다. 목포한국병원은 아홉 개 중 한 개, 화순전남대병원은 열 개 중 두 개가 남아 있을 뿐이다.

광주·전남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국 67.6%와 비교하면 9%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중증 병상 가동률이 높으면 사망자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당장 그제 하루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확진자 15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422명에 달하고 있다. 다행히 나흘 연속 2만 명을 웃돌던 신규 확진자는 그제 1만 5318명으로 줄었으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경우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여섯 명에서 여덟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 두기 조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민생과 방역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는 셈이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할 일은 병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중증 환자용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위중증화를 최대한 억제해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다.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도 서둘러 의료진이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년이 주도하는 5·18 행사, 전국화 계기 되길

“5월을 겪지 않은 세대”가 올해 42주년을 맞는 5·18민중항쟁 기념행사를 직접 꾸리는 새로운 변화가 시도된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최근 참가단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제42주년 기념행사의 기조와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1980년 5월 이후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운영하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5·18 진상 규명 및 헌법 전문 수록, 광주의 오월이 변화된 세상·새로운 시대를 여는 모두의 오월로 등 올해 기념행사의 기조를 따르되, 자신들의 감각과 소통 방식으로 5월 정신의 확산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위는 또 5월 행사 기간 금남로에 체험·교육·문화공연·주먹밥 나눔 등의 부스를 설치해 각계 각층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다양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시대적 가치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민주평화대행

진’ 등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여순항쟁을 조명하기 위한 토론회도 마련했다. 여순항쟁은 국가 폭력 등에 의해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5월 광주와 맥이 닿아 있다.

행사위가 5월 당사자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기념행사를 치르는 관례에서 벗어나 청년들을 주축으로 내세운 것은 의미가 적잖다. 그동안 5월 행사는 폭넓은 시민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가야 할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행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자못 크다. 행사위와 5·18 단체들은 이들의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행사 전반에 걸쳐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통해 5월을 전국화·세계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끊임없는 가치 판단의 축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그림일 수도 있고 와인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지만 내 경우는 음악입니다. 그런 만큼 정말로 좋은 음악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큼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살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난 18일 35회 선곡 주제는 ‘전쟁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음악’. 테마에 대한 호기심에 도쿄 FM 홈페이지에서 해당 음악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밝힌다. ‘하루키’

“음악에 전쟁을 그만두게 할 힘이 있는가? 솔직히 하 아쉽게도 음악에는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듣는 사람에게 ‘전쟁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힘은 있습니다”라며 밴드 도어스(The Doors)의 ‘이름 없는 병사’와 존 레논의 ‘이미진’(Imagine) 등 11곡을 선곡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격화되고 있는 요즘, 음악처럼 하모니를 이루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은 비단 존 레논이나 ‘DJ 하루키’만이 아닐 것이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수자원 관리 정책



김현식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

오늘(3월 22일)은 UN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올해 ‘세계 물의 날’은 ‘하나된 물’을 주제로 기후변화 시대에 모두가 공평하게 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미래상 구현을 메시지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생명줄인 영산강과 섬진강이 직면한 주요 물 관리 현안들에 대해 두루 살펴보고, 생명의 원천인 물을 더욱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영산강은 담양군 가마골 용소에서 발원하여 광주·나주·함평·무안·영암·목포를 거쳐 흐르는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강이다. 영산강에는 다목적댐이 없고, 상류에는 4대호라 일컫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성·나주·담양·광주호 4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다. 유역 대부분 수자원은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영산강은 유량이 매우 적어 실제 하천 유지 유량은 한강, 낙동강 등 타 유역의 면적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유량이 많지 않은 갈수기에는 광주

제1·2하수 처리장(72만㎡/일)에서 방류하는 하수처리수가 하천 유량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수질 문제가 현안인 되고 있다.

영산강 유역 주민들은 대부분 생활 공용수를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인 동북댐·주암댐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섬진강 하류의 유지 유량 감소와 염분 증가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물 이용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 데미샘에서 발원하여 임실·순창·곡성·구례·광양·하동을 거쳐 흐르는 강이다. 주요 상수원인 섬진강댐 배분량의 83%인 연간 3.6억㎡의 물이 유역을 변경하여 동진강 일대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섬진강 하류의 유량 부족, 하상 변화 등에 의한 하류 염해 피해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역 변경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은 지역 간의 물 갈등으로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영산강과 섬진강은 한정된 수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노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유역이다.

산입 발달로 1960년대에 비해 현재 영산강·섬진강 유역 내 경지 면적은 21% 정도 감소하였고, 4대강 사업으로 시행한 농업용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으로 유역 내 23곳 저수지에 약 7600만㎡의 저수 용량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영산강·섬진강 유역

도 수자원 이용량이 가장 큰 농업용수에 대한 정확한 계측을 바탕으로, 과거 건설 당시의 기준이 아닌 현재의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진단하는 등 기존 시설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수립된 물 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 물 관리 기본계획에서도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 댐·저수지의 공급 능력 재평가와 과부족 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기존 시설의 탄력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전국 수리관 일제조사를 통해 16개 다목적댐 중 농업 용수 배분량이 많은 충주·안동·대청·남강 4개 댐을 재산정하여, 충주댐의 농업용수 공급량을 연간 3억 1000만㎥에서 2억 2000만㎥로 변경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다만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 수혜자들의 물 이용 권리 보장과 타 용도 활용 용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방안 마련 및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水善利萬物而不爭)는 글귀가 있다. 물은 공공의 자원이다. 모든 생명체가 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물 환경을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모든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 기관, 물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발행인 김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국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